

■ 공원 탐방

③ 중외공원 ▶ 어린이대공원

광주시립미술관은 어린이대공원 뒷산을 산책하는 주민들이 크게 늘어나자 지난 2007년 나무데크로 산책로를 조성했다. 이곳은 인근 주민뿐 아니라 북구 각 지역에서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광주시 북구 운암동 164번지 일원의 중외공원은 광주에서 중앙공원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근린공원이다. 면적만도 무려 243만9천130.6㎡에 이르며, 박물관지구(120만9천968㎡), 어린이대공원(37만9천583㎡), 비엔날레지구(10만8천971㎡), 연제·동운지구(74만608.6㎡) 등 크게 4곳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난 1975년 당시 서구 중외동 일대 205만5천700㎡의 면적으로 신설된 이 공원은 광주시의 관문인 고속도로 진입로 주변의 도시미관을 위해 공원으로 조성됐다. 이후 1985년 북구 동운동, 본촌동, 서산동 일대 234만8천㎡로 면적이 넓어지고, 어린이대공원, 국립박물관, 시립민속박물관, 시립미술관 등이 들어서면서 문화공간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광주 30~40대 추억속 '꿈의 동산'



높이만 16.5m에 이르는 어린이대공원 내 광주어린이탑.

1981년, 서울 시퍼런 시기 개장된 어린이대공원은 사실 5·18광주민중항쟁과 밀접한 공간이다. 1980년 5·18 이후 너무도 처참했던 광주에 담긴 국민성금 32억400만원, 도민성금 5억원, 행정지원금 13억원 등 56억6천700만원으로 조성된 곳이 바로 이 어린이대공원이기 때문이다. 1980년 당시 김남중 전 광주일보 회장이 이 인근 20만㎡를 구입해 어린이대공원 부지로 희사하기도 했다.

어린이회관, 놀이동산, 팔각정·휴게소 등이 줄줄이 들어섰지만 뭐니뭐니해도 인기가 있었던 것은 놀이기구였다. 학교운동장 구석에 설치된 미끄럼틀이나 그네 등에 만족해야만 했던 당시의 어린이들에게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청룡열차나 범퍼카, 회전목마 등은 그야말로 '꿈의 동산'이었다. 한 번 타는 데 '아이스크림' 몇 개에 해당하는 돈을 내는 것은 당연했고, 그 때마다 보채는 아이들을 달래야 하는 부모님은 솜사탕을 아이 입에 대신 물려줬다. 당시 초등학교생들은 소풍 다녀오라고 부모님이 주신 꼬깃꼬깃한 1천원 짜리 지폐를 동전을 바꾸고, 그것을 시간 단위로 쪼개가며 오랜 시간을 보냈던 곳이다.

81년 전국서 보낸 5·18성금으로 조성

지금의 30·40대라면, 누구나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추억은 한 조각씩 가지고 있을 터이다.

하지만 이 공간은 북구 우치동에 캐밀리랜드라는 종합놀이공원이 들어서고, 컴퓨터 보급과 각종 소규모 놀이공원의 조성 등이 잇따르면서 과거에 비해 찾는 어린이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다만 시립미술관과 박물관, 비엔날레관 등 문화시설이 주변 곳곳에 산재돼 있어 이곳을 찾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지금은 '꿈의 동산 해피랜드'로 바뀐 어린이대공원을 찾고 있다.

위탁운영자인 김형대(53)씨는 "봄·가을이면 여전히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자주 찾는 명소이다"며 "10년째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때보다는 덜하지만 이곳에 대한 추억을 가진 30대 이상도 간혹 이곳을 찾아온다"고 말했다. 중외공원 내에서 어린이대공원이 정확히 구분되지는 못하지만, 대략 그 구역 내에 광주어린이탑과 게이트볼장, 어린이헌장탑과 일부 숲 등이 포함돼 있다.

인근에 박물관·미술관 자리한 '명소'

광주어린이탑은 1982년 5월5일 건립됐으며, 높이만 16.5m에 달하는 거대한 탑으로, 1980년대 당시 사진의 훌륭한 배경이 돼주었다. 어린이대공원이 조성될 당시부터 있었던 비둘기 집도 예전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어린이헌장탑 등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또 최근에는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시립미술관은 지난 2007년 10월 나무데크로 산책로를 조성했으며, 조성 당시 심었던 소나무가 이제는 제법 굵게 자라 동네 아주머니들의 '등치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근 주민 정미순(51)씨는 "심심하면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어린이대공원 숲을 찾는다"며 "지금은 외부에서도 찾을 정도로 유명하고, 미술관이나 박물관도 있어 나름대로 멋진 공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외공원의 핵심요소인 어린이대공원과 시립미술관, 국립박물관, 시립민속박물관 등과 운암저수지, 국공장 등이 호남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갈라져 있어 이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또 광주에서 가장 많은 차량이 집중되고 분산되는 장소인 탓으로, 차량이나 도보를 통한 접근이 다른 공원에 비해 불편하다는 점도 있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 도시제안

최근 각 도시에서는 차량에 의한 편리함보다는 차량으로 인한 폐해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운전자들은 단 50m도 걸기를 거부한다. 도시 곳곳은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넘치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걸거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화재 등의 사고 노출 가능성도 높아진다. 사람이 걸기에도 좁은 골목길은 마치 사유지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차량으로 가득한 길은 사람이 다닐 수 없고,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장소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 가구의 거리나 자동차부품의 거리 등 광주시내 곳곳의 특화거리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하며, 직원들에게 물을 수 없는 특화거리의 몇몇 단골고객만을 위한 공간이 되고 만다. 점포의 이름을 알거나 소개받은 사람이 자신의 차량을 점포 앞에 세우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계약을 한 뒤 다시 차량을 몰고 가는 시스템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고객 창출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도시재생의 지름길

차 없는 거리 확대하자



올해 4월19일 지구의 날 당시 금남로.

매년 지구의 날인 4월19일 금남로에서는 차 없는 날 행사가 벌어진다. 그 때마다 남녀노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주변 출장료에도 담당자 사람들로 넘쳐나고, 점포의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다.

차 없는 거리는 도시재생의 좋은 소재가 되기도 한다. 차량의 출입을 막고, 대신 사람들이 마음껏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좀으로써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주겠다는 것이다. 유럽이나 일본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주말이나 공휴일은 조건 없이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거리가 늘어나고 있다. 이 공간은 젊은 화가들의 전시장이 되고, 개미시장이 되며, 작은 공연장이 된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넉넉한 휴일의 여유를 즐기는 것이다.

광주의 구도심이 쇠퇴했다고 하지만, 충장로는 여전히 젊은이들로 넘쳐난다. 그 이유는 뛰어난 상업 배치나 접근 편리 등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차량이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에서는 가로(街路)가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사람들의 삶이 그대로 묻어있는 가로만이 그러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로에 일정시간, 일정구간 정기적으로 차량의 출입을 막아보면 어떨까한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www.nanomtech.co.kr
대표번호 1577-8515

황금의 5분을 아십니까?

하루 24시간 동안 5분만이라도 심박수 측정하여 건강을 지키세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심박수 측정기
5분만에 심박수 측정기 HeartPlus ACQ-1000E
심박수 측정기 구매하기





광주비otech수업과 공동연구개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심박수 측정기
편의성까지 사용 시 휴식시간에 맞춰

